

“滿月처럼 둥글고 풍요로운 한 해 되길”

정월 대보름, 지역민과 함께한 불교계 사찰·복지관서 민속놀이·부럼깨기 등

‘설은 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이 속담은 객지에 나가 사람이 설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 오지 못하더라도 보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이때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농사)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따돌림 당하기 십상이었다. 그만큼 한 해의 첫 달 보름인 정월 대보름은 1년 농사를 준비하며 풍년을 소망하는 중요한 날이다.

비록 농경사회에서 현대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 비해 약화됐지만 불교계는 정월 대보름을 기념해 다양한 자비행을 펼치며, 온누리를 밝히는 달빛처럼 사회 곳곳에 따뜻한 관음보살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은 2월 22일 남구장애인복지관과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동명불원은 남구장애인복지관에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및 후원성품을 지원키로 했다.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은 “불교 공부 회향은 곧 나눔이다. 육바라밀 실천하는 보살행의 일환으로 가까이 있는 복지관을 선정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랑 스님은 “이번 협약은 용호종합복지관에 이어 두 번째이며 앞으로 3월 중 복지관을 추가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나눔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식에 이어 동명불원은 정월대보름을 기념해 윷놀이와 답답이, 달 집태우기 등 다양한 대보름

축제를 마련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는 같은 날 부산 당리동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30여 명의 학생에게 총 장학금 3천여만 원을 전달했다.

1991년에 출범한 관음선행장학회는 지난 1억 원으로 설립해 운영하던 중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2003년 12월 관음사로 정식 이관돼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온고지신’ 정신 담긴 각종 행사 지역사회 하나 된 화합의 장 거듭나 청소년 장학금 등 소외계층 지원도

고 있다. 이후 2005년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은 법인 자산을 2억여 원으로 증액하며 관음선행장학회를 이끌었다. 더불어 평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스피스교육, 교양강좌, 불교교리강좌 등을 개설하고 받은 강의를 전액 장학회 후원금으로 회사했다. 매년 3~4천만 원을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454명에게 총 4억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현 스님은 “인재발사가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도 장학금으로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고 신도 및 지역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통놀이를 재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민속놀이 한마당서 대형윷을 던지고 있다.



부산불교문화원의 소원지 태우기.



은평노인복지관에서 펼쳐진 윷놀이.



강북노인복지관 투호놀이서 어르신들이 화살을 넣고 즐거워 한다.

현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주지 무원 스님은 대형 윷을 던지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삼광사 주관에는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윷놀이, 부럼 깨기, 더위 팔기, 귀뱀이슬 마시기, 복쌈 먹기 등을 진행했다. 이번 삼광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은 전통민

속놀이를 재현해 조상들의 얼을 되새기고 각 단체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다가오는 삼광사 연등축제 만등불사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주지 무원 스님은 “달과 같이 마음을 환하게 가득 채워서 항상 낙하고 흥만 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문화원(원장 김광호)은 초등학생을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불교문화원 초등학생 및 학부모 50여 명은 먼저 떡만두국 공양으로 화합을 다졌으며 학생들은 직접 소고와 꿩고리를 들고 지신밟기를 따라했다. 이어 소원지를 적고 108배한 학생들은 직접 자신들의 소원지를 태우며 소원이 이뤄질 리를 믿고 소원지를 태웠다. 초등학생의 눈높이 맞게 진행된 특별한 정월대보름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은 연등을 직접 들고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김광호 부산불교문화원장은 “아이들

전 세대 아울러 서로 소원 빌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박웃음’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정진해요”

이 소원지에 적은 모든 소원이 다 이뤄질 길 바란다”며 “전통문화를 통해 하나가 되는 이 시간에 졸업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정월 대보름을 기념하는 불교계 행사는 사찰뿐만 아니라 지역복지관에서도 열렸다.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은 2월 22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지역주민 약 450명을 대상으로 ‘2016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윷놀이, 투호, 딱지치기, 다트, 알까기 등의 놀이를 즐겼다.

관장 소지 스님은 “매일 정월대보름처럼 마음으로 정진하고 바라는 모든

행사에 참여한 황진관 어르신은 “오곡밥, 부럼 등 정월대보름 음식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재밌게 즐길 수 있었고, 올해도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우내내빛복지관(관장 이수경)은 ‘더불어 삶’ 행사를 개최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부럼을 나누고, 민속놀이를 함께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여한 황진관 어르신은 “오곡밥, 부럼 등 정월대보름 음식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재밌게 즐길 수 있었고, 올해도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림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는 지역민과 함께 정월 대보름 행사 ‘취영정’을 개최했다. 행사는 문정1동주민센터 풍물반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소원지 작성, 부럼 및 귀뱀이슬 나눔, 윷놀이 등 옛 것을 되새기고 이웃 간정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센터 로비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해장 황해봉 선생의 전통웃신 작품 전시 및 체험도 진행됐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연을 만들고, 서로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답소를 나눴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2월 19일 서울 진관동 폭포동4단지 제2경로당에서 정월대보름 민속잔치를 열었다. 경로당 어르신들 비롯해 고등학생, 대학생, 폭포동 부녀회 등 전 세대를 아우른 이날 행사는 부럼 나누기, 윷놀이, 정월대보름 음식 나눔 등이 진행됐다.

은평노인복지관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자 했다”며 “특히 폭포동 입주상가회 찬조금과 인근 어린이집의 과일 후원 등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복지를 실천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성미·박익기 기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정월 대보름 행사에서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6년도 1학기 수강생모집

명리실전전공 - 김동현 교수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사주명리학을 비롯한 명리, 구성, 관상학, 성명학, 궁합, 택일 등을 초보과정부터 실전응용까지 적용률 높은 최고의 강의를 하는 전문특별과정입니다.
□ 교육과정 : 사주명리, 구성, 관상, 성명 및 기타강의
□ 교육기간 : 1년 2학기 (32주 과정)
□ 개강일 : 2016년 3월 8일(화) 10시 ~ 13시
□ 모집정원 : 30명 □ 수업료 : 30만원 (1학기)

구성사주전공 - 이남옥 교수

대우주권이 존재하고 있는 기류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받은 무궁무진한 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개운의 학문으로서 태어난 사람의 생년, 생월, 생일의 간지로 숨겨진 운명을 찾아내어 사업, 재단, 결혼, 재물, 질병, 지로 상태를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불행요소를 개운으로 운명을 개척하는데 목적을 두고 강의한다.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1년 2학기 (32주 과정)
□ 개강일 : 2016년 3월 8일(화) 13:30 ~ 16:30
□ 모집정원 : 30명 □ 수업료 : 30만원 (1학기)

한자이름(한자점술) - 최대환 교수

한자타로는 명리에서 쓰는 한자 77자를 뿌리로 한 순간에 ○와 ×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단시점으로 기존의 타로보다 단순하며 빠르고 정확하다. 또한 한자는 스스로의 사고를 갖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문자로 결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여러 가지 뜻을 숨기고 있기에 한자의 내력과 근원을 확실히 익혀서 진정한 명품이름을 자신 있게 만드는데 있다.
□ 교재 : 거북이 한자점, 이름글자대로 산다. □ 모집정원 : 30명
□ 개강일 : 2016년 3월 8일(화) 14:00 ~ 17:00
□ 수업료 : 30만원 (1학기)

실전성명학 - 서범륜 교수

신생아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 주어서 본인의 명에는 물론 사회에 이바지하게 함과 개명을 통해 인생의 희망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해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표로 한다.
□ 교육기간 : 1년 2학기 (32주 과정)
□ 모집정원 : 30명
□ 개강일 : 2016년 3월 8일(화) 10:30 ~ 13:30
□ 수업료 : 30만원 (1학기)

2016학년도 현장풍수 관산 전문가 과정 - 농안

모든 대학의 교과과정은 풍수지리의 핵심인 현장풍수에 대한 학습과정과 시간이 적게 배정되어, 강단에서 이론위주의 교육이 되어 과정을 수료해도 실제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최초로 현장위주의 풍수학을 지도하여 실제 컨설팅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교육기간 : 1년 2학기 (32주 과정)
□ 개강일 : 2016년 3월 13일(일) 오후 2시
□ 교육시간 : 현장학습 - 일요일 (오전 09:00~17:00) / 이론학습 - 일요일 (오후 14:00~17:00)
□ 모집정원 : 30명 □ 수업료 : 1년 100만원 ※ 현장학습 시 별도: 3만원

풍수지리 전문가 과정 - 류호기 교수

풍수지리의 체(體)에 해당되는 형기(形氣)풍수와 용(用)에 해당되는 이기(氣)풍수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며, 이기론의 백미인 현장풍수로 김홍희박을 통해 학기 중 음택과 양택의 현장 답사를 통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할 수 있는 최고의 풍수지리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특전 : 본 과정 수료 후 자격 기본법에 의한 풍수지리사 1급~2급 자격증 수여 (단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1급자격증은 2급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 교육기간 : 1년(2학기 32주) □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저녁 7시(6시간)
□ 개강일 : 3월 5일 □ 수강료 : 140만원 (1년) □ 모집정원 : 20명

장례지도사 - 유재철 교수

故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최규하 대통령의 국가장, 국장을 진행하고 법정스님, 무진장스님의 다비식을 봉행한 교수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및 동법을 시행규칙에 의한 국가자격증으로 2012년 8월 5일부로 국가자격증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서 불안한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30 ~ 40대 경우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에 적합한 자격증이며, 퇴직을 맞이하는 50 ~ 60대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시간	수강료
신규 표준교육반	300	115만원
수료 기준		
이론150 실기100 / 교육후 장례식장 50시간(실습비 포함)		

- 접수 기간 : 2016년 2월 29일 ~ 3월 12일
- 교육 기간 : 2016년 3월 19일 ~ 2016년 7월 10일
- ① 장례이론 및 실습 : 250시간 ② 장례식장 실습 : 50시간
- 수업 시간 : 매주 토·일요일 (10:00 ~ 18:30)

• 문의전화 : (02)3668-9890, 9871~2
www.dongbang.ac.kr